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경 제 혁 신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

2016년 7월 15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인터넷·방송·통신은 7.14(목) 11:00 이후 보도가능

배포일시	2016. 7. 14. (목)	담당부서	전력산업과/에너지신산업정책과
담당과장	노건기 과장 (044-203-5240) 김상모 과장 (044-203-5360)	담 당 자	임기홍 사무관 (044-203-5254) 안근영 사무관 (044-203-5362)

올 여름 최대전력, 여름철로는 사상처음 8천만kW를 넘을 것으로 예상

- 7.15 ~ 8.26간 하계 전력수급 대책 추진 -
- 폭염 등 만일의 사태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주형환)는 7월 15일 「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」을 발표하고,

○ **"올 여름 최대전력은 여름철로는 사상처음 8천만kW를 넘을 것으로 예상**되며, 이상기온, 대형발전소 불시정지, 송전선로 이상 등 **만일의 사태**에도 차질이 없도록 **수급관리에 만전**을 기하겠다."고 밝혔다.

* 8월 2~3주로 예상되는 최고조 시기에 최대전력수요는 **8,170만kW, 공급능력은 9,210만kW로, 예비력은 1,040만kW 전망(예비율 12.7%)**

○ 특히, 여름철은 이상기온, 태풍, 집중호우 등 기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, 예측치 못한 위기에 대응키 위해 **주요 전력설비 특별점검, 비상자원 확보** 등 전력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.

전력수급 전망

□ **(최대전력수요)** 올 여름 **최대전력수요는** 기본적인 수요증가, 기상청 기상전망 등 감안시, **8,170만kW** 수준이 예상되어 여름철 최대전력으로는 **처음으로 8천만kW를 돌파**할 것으로 보인다.

* 기온은 7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고, 8월에는 평년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겠음, 강수량은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고, 8월에는 평년보다 많겠음(기상청)

* 하계 최대전력(만kW) : ('12) 7,429 → ('13) 7,402 → ('14) 7,605 → ('15) 7,692

○ 폭염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**냉방수요 급증시 최대전력**은 **8,370만kW까지도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**하고 있다.

□ 특히, 최근 **최대전력 증가율**이 **날씨에 따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** 날씨와 **수요동향**을 **지속적으로 모니터링**하여 **철저히 대비**할 계획이다.

○ 지난 겨울 **1월 일시적인 이상한파**로 난방용 전력사용이 증가하며 **최대전력**이 전년 겨울보다 **3.5% 급증**한 바 있으며,

* 최대전력 : ('14-'15 동계) 8,015만kW, ('15-'16 동계) 8,297만kW

○ 지난 달에는 냉방수요 급증으로 **6월 최대전력**이 전년보다 **4.2% 증가**하며 6월 최대전력으로는 **사상최대**를 기록한 바 있다.

* 연도별 6월 최대전력 : ('14) 6,980만kW → ('15) 6,988만kW → ('16) 7,282만kW

○ 7월 들어서도 지난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**무더위로 인해 7월 11일에 이미 작년 여름철 최대전력을 넘어선 상황**이다.

* 7.11일 실적 : 최대전력 7,820만kW, 예비력 728만kW (예비율 9.3%)
* '15년 하계(8.7일) : 최대전력 7,692만kW, 예비력 1,268만kW (예비율 16.5%)

□ **(최대전력공급 : 9,210만kW)** 최대 전력수요시 **공급능력은** 신규발전기 준공 등으로 작년 여름대비 **250만kW 증가**할 것으로 전망된다.

* 증가요인 : 신규준공(대용량 4기 등 378만kW), 발전기 정비 감소(124만kW)
* 감소요인 : 폐지(1기, 14만kW), 석탄화력정격운전(79만kW), 비중앙발전기 설비용량 대비 출력변동 반영 등(159만kW)

□ **(최대수요시 예비력 : 1,040만kW)** 이에 따라, 이상기온, 대형발전기 불시정지, 송전선로 이상 등 **돌발상황이 없으면 예비력은 1,040만kW수준**으로 **유지**될 것으로 **예상**된다.

- 다만, 이상기온으로 최대전력이 8,370만kW까지 증가하면 **예비력은 840만kW(예비율 10.0%)로 하락**할 수 있어 예의주시하기로 했다.

전력수급 대책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하계 전력수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**'16.7.15~8.26일**을 **「하계 전력수급 대책기간」**으로 정하고, 만일의 사태에도 **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**하기로 했다.

○ 이에 앞서, 집중호우, 태풍 등 기상이변에 대비하여, 고장빈도가 높고 고장시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큰 **발전소** 및 **송변전설비**에 대한 **특별점검**(6.21 ~ 7.5)을 **완료했다.**

* (발전) 당진화력, 평택화력, 용담수력, (송변전) 한전 경기본부, 전북본부

○ 발전설비 고장 등으로 **예비력이 저하되는 경우** 전력수급 위기경보 단계까지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**긴급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***을 확보하였다.

* 긴급 가용자원 : 수요자원거래시장, 시운전출력 활용, 석탄출력상향 등

※ (참고) 전력수급 위기경보는 예비력에 따라 관심(400만kW이하), 주의(300만kW이하), 경계(200만kW이하), 심각단계(100만kW이하)로 구분하여 발령
- 단, 광역정전 발생시에는 예비력과 무관하게는 심각단계 발령

○ 또한, 예기치 못한 전력수급 **위기경보 발령시**에 대비하여 **비상단계별 대책**을 완비하였다.

* (준비·관심단계) 민간자가발전기 가동, 전압하향조정, 공공부문 비상발전기 가동 등
* (주의·경계단계) 석탄발전 최대보증출력 운전, 긴급절전 수요감축 등

에너지절약 홍보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**시민단체·기업**과 함께 **하절기 절전캠페인**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한편,

○ **적정 냉방온도**(26℃ 이상) **권장, 문열고 냉방영업 자제, 에너지절전 행동요령 전파**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.

* 텔레비전(TV)·라디오, 유관기관 홈페이지, 절전사이트(www.powersave.or.kr)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추진

○ 다만, **공공기관**은 관련 규정*에 따라 **냉방온도 28℃ 이상을 원칙**으로 하되, 건물냉방방식, 기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**2℃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**하기로 하고,

* 「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」 제14조(적정실내온도 준수)

- **학교, 도서관, 어린이집, 대중교통시설, 문화체육시설** 등은 **자체적으로 적정 실내온도를 설정**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.

붙임 : '16년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. (끝)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노건기 과장(☎ 044-203-5240), 임기홍 사무관(☎ 044-203-525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